

시사원정대 NIE 2023-2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시사네컷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최신 이슈의 내용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아봅니다.

주요 장면과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례를 현실감 있게 이해해 봅니다.

3)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필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5)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2월호 3주 (90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을 이해한다. 클로딘 게이의 총장 선출이 세계로부터 주목 받는 이유를 알아본다. 화성에서 전기를 얻는 방법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활동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악범의 머그샷을 공개를 두고 어떻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클로딘 게이의 총장 선출이 갖는 의의를 알아보고 그로 인해 기대되는 변화를 알아본다. 화성에서 전기를 얻는 기술의 종류를 파악하고 각 기술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47~49 맞춤형칼럼 - 홍악범 신상공개 사진 "같은 사람 맞나"	- 머그샷 - 피의자 신상 공개	25
	- 68~71 리치왕을 만나다 -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	- 클로딘 게이 - 도전	25
	- 92~95 과학지식배틀 - 화성에서 전기 어떻게 얻을까?	- 화성 태양광, 풍력 발전	3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해 보자.	5

[3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2월호 3주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을 이해한다. 클로딘 게이의 총장 선출이 세계로부터 주목 받는 이유를 알아본다. 		
활동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악범의 머그샷을 공개를 두고 어떻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클로딘 게이의 총장 선출이 갖는 의의를 알아보고 그로 인해 기대되는 변화를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47~49 맞춤형칼럼 - 홍악범 신상공개 사진 "같은 사람 맞나"	- 머그샷 - 피의자 신상 공개	20
	- 68~71 리치왕을 만나다 -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	- 클로딘 게이 - 도전	10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해 보자.	5

맞춤칼럼

형악법 신상 공개 사진 “같은 사람 맞나”

<어휘 UP>

혐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증언: 증인으로서 사실을 말함.

식별: 분별하여 알아봄.

보복: 자신에게 해를 준 대로 자신도 그 사람에게 해를 줌.

실명: 실제 이름.

취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뜻.

검토: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짐.

심의: 심사하고 토의함.

<발문>

1.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의 장단점을 정리해 발표해 보자.
2.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이유 3가지를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끝내 얼굴 감춘 이기영... 신상공개 44명중 ‘최근 사진’은 1명뿐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은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순간에도 마스크와 패딩에 달린 모자를 쓰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용 사진(머그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 간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상공개 44명 중 머그샷 공개는 1명뿐

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경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겨지며 취재진에게 “살인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선 “없다”고 했지만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청엔 응하지 않았다. 이기영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신상공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이기영이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경찰은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과 지나치게 달라 논란이 됐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2010년 4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뿐이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및 중대 피해 여부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다만 어떤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다.

신상공개 제도 도입 후 2019년까지 증명사진 외에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9년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어났다. 이때 경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머그샷 공개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피의자 동의를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이기영이 지금과 확연하게 다른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실효성 위해 공개” vs “피의자 인권 침해”

전문가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해야 한다”며 “피의자 인권에 지나치게 무게를 실으면 일반 시민의 법 감정과 멀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신 사진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머그샷을 공개하면 범죄자라는 인상을 심어줘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범죄자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후에 공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외에서도 머그샷 공개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다. 다만 미국, 일본 등 비교적 신상공개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담은 머그샷을 공개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미국은 피의자 동의가 없더라도 경찰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한다”며 “신상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하되, 일단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2023-01-05]

리치왕을 만나다

[도전 부자]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

<어휘 UP>

명문: 이름 있는 훌륭한 집안이나 학교.

수식어: 의미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표현.

임명: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김.

빈곤: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선출: 여럿 가운데서 골라 냄.

훗날: 시간이 지나 뒤에 올 날.

의혹: 의심하여 수상히 여김.

<발문>

1. 클로딘 게이 총장 선출이 주목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2. 일상에서 차별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표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하버드대 개교 386 년만에 첫 흑인 총장 탄생

미국 명문 대학인 하버드대에서 최초의 흑인이자 두 번째 여성 총장이 탄생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5 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1636 년에 설립돼 올해로 개교 386 주년을 맞는 하버드대는 그동안 총장이 모두 백인이었고, 비(非)백인 총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버드대는 이날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문리대 학장(52)을 제 30 대 총장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대학 측은 "게이 내정자는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및 연구 혁신에 박차를 가했으며 민족, 빈곤,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게이 내정자는 로런스 배카우 현 총장의 뒤를 이어 내년 7 월부터 하버드대를 이끈다.

게이 내정자는 1970 년 아이티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 미국 뉴욕에서 성장하다 미군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아버지를 따라 잠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했다.

그의 부모는 어려운 형편에도 딸의 교육만큼은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그 결과 게이 내정자는 미 명문고인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를 졸업한 뒤 1992 년 스탠퍼드대 경제학과를 거쳐 1998 년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라면 공감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학자가 아닌 엔지니어나 의사, 변호사 중 하나가 되길 원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탠퍼드대 보건정책학 연구원인 크리스토퍼 어펜덜리스 박사와 결혼한 게이 내정자는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게이 내정자는 스탠퍼드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해 2006 년 하버드대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사회과학대 학과장, 문리대 학장을 거쳤다. 특히 게이 내정자는 인종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흑인 등 소수인종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 출마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빈곤층 주거 지원 정책의 성과 등을 주로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 내정자는 이날 총장 지명 연설에서 "(현실과 괴리된 학문에 몰두하는) 상아탑 개념은 과거의 개념으로 흘러보내야 한다"며 "우리는 사회 속의 일부로 존재해야 하며 하버드는 세상과 더 많이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2022-08-11]

과학지식배틀

화성에서 전기 어떻게 얻을까?

<어휘 UP>

미지: 아직 알지 못함.

원대하다: 계획이나 희망 등의 장래성과 규모가 크다.

궤도: 원형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경로.

전지판: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판 모양의 장치.

터빈: 날개를 회전시켜 힘을 얻는 장치.

복병: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장애물.

<발문>

1. 태양광, 풍력 외에 화성에서 전기를 얻을 방법을 상상해 이야기해 보자..
2. 화성에서 생활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하루 일과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우주서 태양광 모아 지구로 쏜다

미국의 과학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1941년 발표한 단편소설 '리즌(Reason)'에서 우주 공간에서 얻은 태양광 에너지를 지구로 전송하는 우주 태양광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 기술을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는 응용물리학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2013년 '우주 기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SSPP)'에 착수했다.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1억 달러(약 1150억 원)를 투자받아 8년여간 진행된 이 연구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관심을 모았다.

○인류 위한 현실적 꿈 끈 부동산 부자

이달 3일(현지 시간) 칼텍 SSPP 연구진은 이 익명의 투자자가 미국 억만장자인 도널드 브렌 부부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2023년 실제 우주 공간에서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첫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어바인컴퍼니를 이끄는 브렌 회장은 보유한 순자산만 150억 달러(약 17조 3000억 원)에 이른다. 브렌 회장은 3일 "학생 시절 수년간 우주 기반 태양광 에너지 응용 연구를 실제로 한 경험이 있다"며 "우주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을 지원해 인류의 에너지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 창업자나 블루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창업자와 같은 세계적인 부호들이 우주관광·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브렌 회장은 지구가 당면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꺼이 거액을 내놓은 것이다.

○우주 태양광,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 핵심

국제우주정거장(ISS)과 지구 궤도를 도는 수천 개의 위성, 달·화성 탐사 로버 등은 이미 태양전지판을 통해 작동에 필요한 전기를 얻고 있다.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에서처럼 햇빛을 막는 대기나 구름이 없다. 낮과 밤이 생기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으로 태양빛을 이용할 수 있다.

우주 태양광은 우주 공간에 펼쳐진 태양전지판으로 발전해 지구로 전송하는 진일보한 개념이다. 지구에서 수신한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우주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지구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SSPP 연구진은 우주에서 얻은 태양광 에너지를 레이저나 빔 방식의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지구로 전송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을 최근 완료했다. 앞서 2017년 말에는 단위면적(1m²)당 1kg 미만의 태양전지를 넣을 수 있는 초경량

모듈을 만들고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빔을 통합한 회로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2023 년 우주 공간에 프로토타입을 발사해 무선 전력 전송 첫 테스트에 나선다. 해리 애트워터 칼텍 응용물리학·재료과학과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 자원인 태양광을 우주에서 얻는 것은 가장 혁신적인 에너지 확보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 해군, 우주 태양광 가능성 첫 입증... 일본·유럽 등도 눈독

우주에서 얻은 태양광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는 기술은 지난해 5 월 미 해군연구소가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연구소는 ‘태양광 무선 전송 안테나 모듈(PRAM)’이 실린 소형 위성을 무인 우주비행체 ‘X-37B’에 실어 발사했다. PRAM 은 가로세로 30.5cm 크기의 태양전지로 태양광 에너지를 얻고 이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전송하는 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PRAM 이 실린 소형 위성은 지금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연구소는 PRAM 장치로 10W(와트)의 전기에너지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블릿 1대를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2024년에는 대규모 우주 태양광 에너지를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지구로 전송하는 실험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본과 유럽도 우주 태양광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무선으로 전력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일본은 2015 년 무선으로 1.8kW(킬로와트)의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55m 떨어진 안테나에 보내는 실험에 성공했다. 2050 년대까지 우주 태양광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유럽우주국(ESA)도 우주 태양광 실험을 위한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알리 하지미리 SSPP 공동의장은 “우주 태양광 기술이 대규모로 완벽하게 구현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 기술인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2021-08-13]